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임을...

제66-5차 임원회

교단 제66-5차 임원회가 지난 9월 21일(목)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삼동로 아산순복음교회(담임 차흥식 목사)에서 열려 활력의 계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엄기설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윤병하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서기 차흥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차 목사는 벤전 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결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항상 바른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것"을 전하고 "지역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지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교단과 임원회를 위해, 아산순복음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뒤 교단 차흥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교단 총회장 김영인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차흥식 목사의 회원점명 후 김영인 목사의 개회선언이 있었으며 총무보고로 2018년도 목사고시 대상자 서투심사, 전국여교역자국 추계성령충만수련회 등의 내용을 보고했으며 재무 탁정진 목사의 수입보고, 교단발전기금 납입현황 보고, 회계 윤병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는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역자은퇴 보고, 교역자후직 청원, 2018년도 목사고시 대상자에 중 이혼자 및 미혼자에 대한 사안은 심의 후 결의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일본지방회 정기지방회 지원 건, 2017전국사모연합회 단합대회, 66-2차 실행위점검 등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재무 탁정진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2018년도 목사고시대상자 오리엔테이션

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 등 안내



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는 지난 9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총회본부에서 2018년도 목사고시 대상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목사고시 일정 등 목사고시를 위한 제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고시위원회 서기 이석호 목사의 사회,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기도에서 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잠 20:24, 19:21 말씀을 본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 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다 될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려는 지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한 뒤 고시생들을 축복했다.

김인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임원을 선출하고 연락망을 구축했으며, 목사고시 문제집 발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목사고시는 2018년 2월 5일(월) 오전 10시부터 치

라지며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행정학, 목회윤리학, 헌법, 기독교교육, 교회성장학 등의 과목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성경고시는 2018년 2월 6일(화) 모세오경, 역사서(구약),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등의 과목에 대해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들이 출제되어 평가를 하게 되며 설교 및 면접은 성경고시 이후 곧바로 실시된다.



'참으로 잘 사는 사람'



조용목 목사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 1:31)

우리는 생활상태에 대하여 '잘 산다' 또는 '못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대체로 경제적 수준을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산다'는 개념은 이러한 차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는 참으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경적 개념의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시한폭탄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죽음이 존재의 끝이 아니라 멸망 선고의 형 집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한다고 결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녕 잘 산다는 것은 그가 소유하고 누리는 환경과 육신의 상태보다 영적 상태에 관련됩니다.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 위기를 알지도 못하고 다만 육신적인 안락만을 추구하고 이를 즐기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비극입니다. 인생에 제일 급선무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둘째로,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영원하고 참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천지 만물은 점차 열락타는 불에 다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때 우주 대정소를 단행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다. 최

후의 심판 때에 불신자는 불 못에 던져지지만 반대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공력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심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으로 행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둘째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란 주님을 섬기기 위해 행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몇 가지로 구분하자면,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물질을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물은 선교 활동, 교회당 건축, 구제, 교역자 양성, 신앙교육 등 여러 방면에 사용되어 집니다. 이는 모두 주의 일이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셋째로, 기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환경에 나타나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크신 능력을 성도들의 삶에 나타내시어 채우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기 원하며 또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혹 그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였다 해도 그것만으로 "참으로 잘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누구라도 진정으로 원하면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가능합니다.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영원하고 참된 의미와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여러분은 주어진 한 평생의 세월이 영원하고 참된 의미와 가치를 지니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 일에 헌신해, 기도해 합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전리교회)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홈페이지 : www.ucts.org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

종교인과세 관련 교계 의견 청취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14일 한교연 방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9월 14일(목) 오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을 방문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교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특별히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교계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정부는 오히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기독교 교계가 바라는 것은 많지 않다.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걸로 몰고 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 목사들도 세금을 낼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세금도 내고 종교의 자유도 침해받는 식의 이중 고통을 겪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회장은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교회가 깨끗하면 세무사찰을 겁낼 필요 없이 없애면서 기독교에 대해 부정이 많은 집단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정이 많아서 걱정하는 게 아니다. 교회 재정은 목사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재정위원회가 한다. 그런데 세무 당국이 교회를 사찰하게 되어 신앙을 침해받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두 가지는 분명히 말 씀드릴 수 있다. 한 가지는 기독교계가 세금



을 내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는 종교인 과세로 인해 종교 활동을 침해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로 인해 이런 부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무사찰 등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그 점에 있어 추호도 그럴 의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종교인 과세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할 것이며,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종교계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회장은 “약속을 하나 받고 싶다. 앞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어떤 안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종교계와 실무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부총리는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종교계와 상의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국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국회가 결정하면 결정할 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오늘 청취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성전 외국인선교회, 재외국민 위한 의료 봉사

아주대의료원 봉사동아리 회원들과 그리스도의 사랑 전해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는 외국인 성도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와 홀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선교회의 의료봉사활동을 지난달 17일(주일) 수원성전 세계선교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날 선교센터내 진료실과 치과진료소에서 실시된 의료봉사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성도와 근로자 및 홀몸 노인들이 찾아와 봉사하는 의료진들로부터 정성어린 검진과 치료를 받고,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치과, 재활의학과 등 아주대의료원 봉사동아리 소속 회원들과 함께 국내 연수 중인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술을 베풀며 헌신하였다.

의료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교회 회원들은 안내 등의 봉사를 맡아 의료진의 진료 편의를 돕는 한편 처음 선교병원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 독거 노인분들께 복음을 전하였다.

수원성전 외국인선교회는 다음 의료 봉사를 오는 10월 15일(주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희 목사, 예상합동 부총회장 당선

921표 얻어 김정훈 목사 누르고 당선…장로 부총회장은 최수용 장로 당선

예상합동 제102회 부총회장 선거에서 이승희 목사(대구 반야월교회)가 당선됐다.

이목사는 지난 9월 18일(월) 저녁에 치러진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 1,478표 중 921표를 얻어 김정훈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다.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서 최수용 장로가 당선됐다.

처음 실시한 전자투표로서 2시간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선관위원장 박무용 목사가 투표 종료 선언한 시간은 밤 10시 47분이었다.

이어 총회장 예우 문제를 결의한 후 신규



임원 교체식을 했다.

제101회 총회장 김진규 목사는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잘 섬겨준 총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102회 총회장 전계현 목사에게 성경과 헌법과 고토를 인계했다. 전 목사는 총회장 취임사를 통해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성경을 떠나버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떠나버린 교회, 하나의 일반적인 종교로 추락해버린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재정하신 거룩한 교회로 회복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또 “종신분제는 총회가 안고 있는 가장

하이어슈”라며 총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총회 현안 문제 타결을 위해 힘을 쓸 것이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실천주의 개혁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밤 11시 28분 증경 총회장 김진규 목사의 기도로 총회 첫째 날 회의를 마쳤다.

△제102회 총회 임원 명단.
총회장: 전계현 목사(이리노회)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동대구노회), 최수용 장로(수도노회) 서기: 권순용 목사(행서노회) 부서기: 김중혁 목사(울산노회) 회록서기: 장재덕 목사(경동노회), 전용훈 목사(서울강남노회), 회계: 서기영 장로(대전노회), 부회계: 이대봉 장로(대구 중노회).

림형석 목사, 예상통합 부총회장 당선

2차 투표에서 716표 얻어 21표 차이로



예상통합 제102회 부총회장 선거에서 림형석 목사가 당선됐다. 총회장에는 부총회장 최기학 목사가 추대되었다.

1차 투표에서는 임 목사가 앞섰으나 두 사람을 놓고 한 투표에서는 표가 림 목사에

목사 268표, 조병호 목사 219표, 정도출 목사가 139표를 얻었다.

림 목사와 임 목사를 상대로 2차 투표에서 1407표 중 림형석 목사 716표, 임은빈 목사는 692표를 얻었다.

1차 투표에서는 임 목사가 앞섰으나 두 사람을 놓고 한 투표에서는 표가 림 목사에

림 목사는 예상통합 총회장을 역임한 림인식 목사의 아들이다.

△예상통합 제102회 총회임원 명단.
총회장: 최기학 목사, 목사부총회장: 림형석 목사, 장로부총회장: 이현범 장로, 서기: 김의식 목사, 부서기: 이병우 목사, 회록서기: 최태순 목사, 회록부서기: 이재학 목사, 회계: 이종원 장로, 부회계: 이경희 장로

침례교 107차 총회 안희묵 총회장 선출

“침례병원 회생, 침신대 정상화…대안 마련하는 총회장 되겠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7차 정기총회가 지난 9월 18일(월)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열려 총회장에 안희묵 목사(중앙교회)를 선출했다.

1802명이 참여한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안희묵 목사와 기호 2번 박종철 목사가 경선을 벌인 가운데 915대 871로 근소한 차이로 나타났다.

2차 투표가 준비되려던 순간 박종철 목사가 패배를 인정하고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안희묵 목사가 자동으로 당선됐다.

안목사는 “교회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목사의 노후는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목회자 자녀들의 앞날은 너무 불안하다. 침례병원과 침신대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우리 교단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대안을 마련하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엘피스장학재단을 통해 목회자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미래목회 허브센터를 통해 목사님들이



목회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라며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매년 5억씩 앞으로 3년 동안 15억을 지원하겠다. 침례병원 회생, 침신대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안목사는 “오늘의 침례교단이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들의 노후가 절대로 비참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시

작한 연금정책을 반드시 승계, 발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회예배에서 소회를 밝힌 유관재 목사는 “교단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조금은 부족하고 안타까운 소식들로 여전히 섬김과 헌신이 부족했음을 고백한다”며 “지난 1년 동안 함께 헌신했던 임원들과 함께 교단의 부흥과 미래를 위해 빛나고 자랑스러운 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음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세계바울부흥선교협 오찬기도회

실행위도 갖고 협의회 발전책도 논의

세계바울부흥선교협의회(대표회장 심재선 목사)는 지난 9월 15일(금) 오전11시 서울 천호동 드림리스에서 오찬기도회 및 실행위원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저지를 위한 합심기도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강봉구 목사의 사회로 노병훈 목사의 성경봉독, 최남복 목사의 장 22:22-2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주님 안에서

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계속된 예배는 기태영 목사의 헌금기도, 황준익 목사의 헌금송, 조지현 목사의 성시 낭송, 김중석 목사의 광고 및 인사, 이성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오찬기도회 및 실행위원회는 대표회장 심재선 목사의 사회로 ‘세계선교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황준익

목사가, ‘국가안보와 경제회복을 위하여’ 김중석 목사가 특별기도를 인도한 후 ‘한반도 평화와 북핵 저지를 위하여’ 참석자 모두가 뜨겁게 합심기도를 했다.

실행위 안전도위는 협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모임은 오는 11월 24일(금) 갖기로 했다.

선교사·목회자 위한 창조과학세미나

한국창조과학회 주최로 제6회째

한국창조과학회(회장 한윤봉 목사)는 지난 9월 25일(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남서울교회(회장부 목사)에서 제6회 선교사와 목회자를 위한 창조과학세미나를 개최했다.

창조신앙과 진화론의 공존이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21세기 과학만능주의시대에 만들어진 진화론과 과학주의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시기에 전문가들을 통해 최신

과학자료로 창조의 신성과 능력을 전하며 선교와 목회현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태영 목사(대전은누리교회)가 ‘창조신학과 반 창조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한윤봉 교수(전북대 화공학부)가 ‘창조신앙과 과학, 그리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최윤식 교수(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가 ‘생명정보는 저절로 발생할 수 있

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동권 박사(주지오스캔 이사)가 ‘지구환경은 진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권진혁 교수(영남대 물리학과)가 ‘우주 속에 숨겨진 창조세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조용중 선교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가 ‘한국교회와 선교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는 등 여섯 명의 전문가가 인도했다.



순복음만남의교회창립 20주년 및 임직예배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김연수 목사)는 지난 9월 17일(주일) 오후 4시 순복음만남의교회(담임 안재홍 목사)에서 교회창립 20주년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안재홍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빛나리순복음교회 한영남 목사의 기도, 제주드림교회 성경경목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연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었 4:11~12 말씀을 본론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즉 소명에 순종한 것처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보내심 즉 사명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모두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겸손히 순종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진정한 부르심의 목적은 교회공동



체를 위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니 임직자들은 모세를 좌우에서 도운 아론과 훌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담임 목사의 목양사역에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되

어줄 것”을 당부했다.

2부 임직식에서 새롭게 취임한 4명의 권사들은 순복음만남의교회 사명자로서 충성하며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서 대림 벨렘교회 조신남 목사의 축사와 임직자 대표로 김연수 권사의 담사, 안재홍 목사의 광고, 김연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선물증정과 애찬 및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순복음만남의교회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슬로건 아래 성경 답은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지역 독서운동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으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방충국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전을 만들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는 지난 9월 11일(월) 오전 11시 만나순복음교회(담임 김희경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오병용 목사(아펜젤러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신현찬 목사(기쁨충만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김희경 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대하 3:1 말씀을 본론으로 ‘성

전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 장소였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건축해야 할 성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같이 오는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며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보여 달라

고 말씀하시며 주의 종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우상의 자리가 될 것이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지수 목사(애틀랜트교회)의 헌금기도, 김윤용 목사(증평 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회장 최동순 목사의 진행으로 조재호 목사의 재무보고, 민병훈 목사의 회계보고, 김용 목사의 총무보고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다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단의 발전과 충북지방회 신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 한 후, 최동순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치고 만나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쳤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역자 되어야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박상규 목사)는 지난 9월 21일(목) 장복순복음교회(담임 양희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심혜원 목사의 기도, 증경회장 김중곤 목사의 롬 10:17 말씀을 본론으로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회계 박운석 목사의 헌금기도, 김중곤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월례회에서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장복순복음교회



에서 준비한 풍성한 애찬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신앙의 확신 갖고 사명 감당할 것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승욱 목사)는 지난 9월 7일(목) 오전 11시 금강순복음교회(담임 장호순 목사)에서 지방회 월례회를 가졌다.

오 목사는 벰전 1: 5-9 말씀을 본론으로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침기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노우석 목사(평안교회)의 기도와 재무 김영희 목사(순복음장대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증경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벰전 1: 5-9 말씀을 본론으로

‘신앙의 확신’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신앙의 기본 하나님 살아계심,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것”을 강조하며 “그 확신이 있어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역자가 되자”고 전했다.

이어 회계 한정숙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장호순 목사의 축도로 예배순서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각부 회무보고와 결의 및 기타사항을 처리하고, 11월 아유회 장소를 선정하였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금강순복음교회에서 섬긴 점심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통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합대회 통해 사랑의 교제 나눠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유석구 목사)는 지난 9월 14일(목) 기평순복음교회(담임 조남영 목사)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재방회원들의 영육간의 피로를 해소하고 사랑의 교제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침 지방회원들은 기평순복음교회에서 모여 흥천 내리전 휴게소를 거쳐 대포항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회와 맛있는 매운탕으로 점심을 든든히 먹고 속초 시립 박물관에 들러 어린 시절 놀던 추억을 회상하며 게임을 즐겼다.

이후 양양해변을 찾아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바다의 파도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창조소리를 감상하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기평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춘천의 유명한 닭갈비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자연의 신비와 하나님의 복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다.



판문점 안보 견학, JSA·제3땅굴·임진각 방문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최은규 목사)는 지난 9월 18일(월) 오전 한반도 최전방 판문점과 판문점 공동 경계 구역 및 제3 땅굴, 그리고 임진각 등을 방문하였다.

이날 가족을 포함한 총 23명의 회원들은 오전 7시 30분 동문교회(담임 정광자 목사)에 모여 판문점으로 출발하였다.

출발 전 예배는 총무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김병호 목사(순복음 행복한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인형순 목사(순복음 아펜교회)의 성경봉독, 김진태 목사(선한열매교회)의 특송, 최은규 목사(순복음선한목자교회)의 설교 회계 최광자 목사(순복음 온누리교회)의 헌금 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 목사는 속 1:18-21 말씀을 본론으로 ‘대장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대장장이가 되어 어떠한 거친 원석도 잘 다듬어 하나님 나라에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그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회원 모두를 위해 당부했다.



안디옥순복음교회 창립예배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유석구 목사)는 지난 9월 24일(주일) 오후 3시 경기도 인창동에 위치한 안디옥순복음교회(담임 임요셉 목사)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지역복음회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창립예배는 이불기 목사(머리울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순형 목사(아침빛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신근철 목사(구리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회장 유석구 목사(예배다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살전 5:12-22 말씀을 본론으로 ‘교회생활의 3대 노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담임목회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고 질서있게 신앙생활을 할 것과 더 나아가 서로 우애하고 선대하는 성도와 교회 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정순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안디옥순복음교회(임요셉 목사)의 인사말과 광고가 있었다. 임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지방회 여러 임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역사회복음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것”

을 다짐하고 안디옥순복음교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였다.

지방회장 유석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순복음안디옥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며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포커스 / 성경적 경제부흥 10

최정식 목사(순복음복원교회)

“축복하는 자가되라”

축복이란? 사람이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에게 말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물론 복의 주체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써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이다(창 1:27,28). 창세기 22장 17,18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한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고 잡배야 한다.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성경 잠 22:4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적 경제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다 (갈 3:13,14).

눅 24:50,51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전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의 전 담자로서, 복의 통로로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축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축복은 믿음의 말로 하는 것이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그러므로 말에는 신적권세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이 역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영적인 것들이 모두 다 말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입술로부터 시작된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허를 잘 지켜야한다.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정말 죽고, ‘살겠다 살겠다’ 하는 사람은 정말 살게 된다. 잠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허를 쓰기 좋아 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한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복과 화를

주신다.

민 14:28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즉, 우리가 말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행하시겠다는 말씀이다.

말에는 특별한 권세가 있어 성취력과 견인력과 각인력과 창조력이 있다.

눅 6:45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이 한 말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지화상을 부요의식으로 바꿔야한다. 생각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말이고, 내가 말한 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입술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성령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한다. 잘못된 말 한마디의 파괴력은 실로 놀랍다.

눅 1장의 사가랴가 가브리엘전사의 말을 거부했다가 세례요한의 출생 때까지 병어리가 되었다. 반면 마리아는 가브리엘전사의 말을 사인했다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여라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한다. 내가 남을 저주하면 남이 저주를 받고 내가 남을 축복하면 남이 축복을 받는다.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권세를 주셨지만 저주할 자격은



감동이 있는 국제학생사진전시회

신촌 우리갤러리에서 국제학생사진전시회 및 특별기도회 개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학생 선교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이때, 지난 6년간 유학생 선교 역사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시회가 열렸다.

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의회(KOWSMA) 분성주 대표는 “국제학생선교를 위한 매주 수요기도회를 시작한 지 30회를 기념한 유학생사진전시회와 특별기도회를 지난 9월 27일(수) 신촌 우리갤러리에서 개최했다”며 “2012년 1월 4일부터 6년간 유학생선교를

위해 기도회를 하며 맺어온 사역 열매를 보고하는 시간도 있었다”고 밝혔다.

(사)파우아교육협력재단(손봉호 이사장)이 주관하고 (사)H사람나눔재단(최인경 이사장)이 후원한 이번 전시회는 분성주 대표와 비전코리아29 김광웅 대표가 지난 11년 간 꾸준히 준비해 온 작품을 최초로 공개했다.

김광웅 대표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04년 아테네올림픽 당시 한국의 전통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 부모에게 불평하는 말, 남편의 권위에 도전 하거나 욕하는 말, 아내를 무시하거나 욕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이웃을 비판하지 말고 교회를 대적하거나 주의 종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창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민 6: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시 81:10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구한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방문하는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집승이든 식물이든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란다. 왜냐하면 내가 빌어주는 복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이 먼저 복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야한다(창 24:1). 하나님의 종들은 축복권이 있음으로 그의 성도들을 축복하되 마음껏 축복해야 하고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축복할 권세를 주셨으므로 매일매일 자녀를 축복해야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축복은 영적권세가 따른다.

복을 받은 성도들도 성도들을 축복해야 한다. 벤전 3:9에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창 27장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고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물려받아 기업으로 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열두지파를 축복하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야곱은 노년에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기독교문화예술전단

이상열 목사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한국크리스천문화학협회 이사, 전 서울예술신학교 학장, 전 바기오예술신학대학교 총장

예술선교의 신학적 배경 ⑥



6. 선교 예술의 본질과 그 가능성

무릇 예술은 하나의 표현이다. 따라서 기독교예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현이다. 그렇다고 모든 삶의 표현이 다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expression)이란 내부적인 것으로 밖으로 말아낸다. 혹은 드러낸다는 뜻이다. 인간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말 또는 동작으로 나타낸다. 그렇다고 그런 말이나 동작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체험을 상상(imagination)을 통해서 재현시켜야 한다. 이런 창조과정에는 예술만이 갖는 독특한 원리가 있지만) 이 상상력을 다른 말로 영감(inspiration)이라고 한다. 그것을 서서적인 용어로 바꾸면 ‘성령을 받음’ 혹은 ‘성령이 임함’이란 말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간단히 요약하면, 기독교 예술이란 그리스도인의 신앙체험을 성령 안에서 재현시킨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같은 기독교 예술의 원형이 되는 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이다. 본래 예술은 종교와 함께 시와 음악과 춤이 분화되기 이전의 형태, 즉 종합 예술로 그 시원(始原)을 같이 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서 기독교 예술의 본질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예술은 본질상 축제와 제의(祭禮)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역시 이런 제의적인 성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보면, 이것은 구약의 시편과도 그대로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예술의 특징을 좀더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구약의 시편은 그내용과 그것이 사용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찬양시편(Psalms of Praise-Hymn), 탄원시편(Lament), 감사시편(Palm of Thanksgiving) 기타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구약에 수록된 대부분의 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시편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기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날 예배는 이경준 선교사의 사회로 설하순 목사의

고 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은 앞서 말한 대로 곡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악기의 반주에 따라 노래부르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이렇게 시와 노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올려진 것으로 그 연원은 신적(神聖)인 것에 두고 있으며, ‘서로 화답하며’에서 보듯이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성격의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제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시편의 5권이 모두 ‘하렘, 아렘’ 또는 ‘할렐루야’의 송영으로 끝맺고 있듯이 이것은 또 모두 신앙고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을 요약한다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행위는 곧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에 응답하는 고백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예술이다. 또 이 고백은 그 어원인 Confessio가 말해 주듯이 ‘증거’ 또는 ‘증언’의 의미도 지닌다. 무슨 말이나 하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동시에 고백하는 자의 체험을 증거 또는 증언하는 행위이기도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기독교 예술이 예배 행위뿐 아니라, 선교로서의 효용성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예술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새삼 운위되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선교 예술의 신학적 기초를 마련하려면 최소한도 예배와 선교에서 담당하는 기독교예술의 역할과 그 본질에 대한 이해와 신학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줄 안다.

그리고 그 예술은 시(문학)와 노래(음악)뿐 아니라, 예술의 모든 장르에 걸쳐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림(미술)과 춤(무용)과 그것들의 종합 장르인 연극, 영화에까지 예술신학의 차원에서 새로이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독교예술이 신앙공동체적인 삶의 표현으로 승화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딪치고 있는 21세기에 대처하는 선교전략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에 32개처 게르교회 건축해 헌당

한교연, 울란바타르 시내에 선교센터 건립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은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게르교회 47개처 헌당식과 몽골 선교센터 설립을 위한 현지 사역자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게르교회 헌당으로 한교연은 몽골에 총 32개 처의 게르교회를 건축 헌당했다.

최귀수 목사 등 9명의 몽골 선교단은 지난 5일 오전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50여 명의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게르교회 헌당예배를 드리고 교회 헌관을 현지사역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예배는 이경준 선교사의 사회로 설하순 목사의

기도, 김효종 목사의 설교에 이어 몽골 복음주의협의회 사무총장 아르온볼트 목사가 환영사를 최귀수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이경준 선교사의 경과보고를 한 후 새로 신축한 4개의 게르교회 헌관을 현지사역자에게 전달하고 오민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효종 목사(호헌 증경총회장)는 ‘민수기 6장 21-22절’ 제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몽골교회가 깊게 뿌리내려 열매 맺는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5th

GOOD SOLDIER

훌륭한 군사

2017.10.3.(화)-7.(토) 4박5일

대상/ 청년(19세이상)

문의/ 010-5145-3816

장소/ 괴산순복음교회

회비/ 없음(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엔학고레미니스트리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통일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http://agpgs.aogk.org

2017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50,000 원
- ②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 원서접수: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2017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써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감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30,000 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 원서접수: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서울시마포구월드컵로 31길 6, 2층 전화: 02-706-2970~1 FAX: 02-706-2990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 포럼

주 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치료한다)

일 시

2017년 9월 28일(목) 오전 10시30분-오후4시

장 소

기독교회관 2층(대강당)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연지동, 02-763-9746)

설 교

예영수 목사
(라이프신학대학 총장)

강 사

박용기 목사
(성경신학대학원 원로)

강 사

나용화 목사
(가신대(현대)교신 총장)

강 사

김남식 목사
(한국성교사학회 회장)

강 사

조요안 박사
(총회신학대학 학장)

강 사

육옥수 목사
(사예장연 교문)

강 사

서재복 목사
(사예장연 교문)

대회장

이광용 목사
(사예장연 대표회장)

준비위원장

이성현 목사
(사예장연 상임회장)

준비위원장

이강익 목사
(사예장연 상임회장)

준비위원장

장승우 목사
(사예장연 상임회장)

준비위원장

손대영 목사
(사예장연 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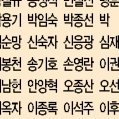
인사 및 광고

손대영 목사
(사예장연 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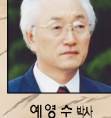
헌금기도

오선미 목사
(사예장연 회계)

찬 양

김마리 목사
(사예장연 부회계)

집필 및 편집위원

예영수 목사
(라이프신학대학 총장)

집필 및 편집위원

송기호 목사
(여명연합신학교 총회장)

집필 및 편집위원

조요안 박사
(총회신학대학 학장)

집필 및 편집위원

박용기 목사
(성경신학대학원 원로)

집필 및 편집위원

우진무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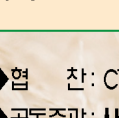
집필 및 편집위원

최병남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집필 및 편집위원

안병삼 목사
(예성교회목회(현) 총회장)

집필 및 편집위원

최선근 목사
(예성교회목회(현) 총회장)

◆협 찬: CTS기독교TV, 교회연합신문, 복음신문, 독양신문, 한국크리스천신문, 기독교중앙신문

◆공동주관: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기독교지도자협의회

은혜와진리동산 뒷산을 걸으며 사랑의 교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 감당 스포츠선교위원회 걷기동우회 12차 모임

교단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김순구 목사) 산하 걷기동우회(회장 홍현철 목사) 회원들은 지난 9월 25일(월) 낮 12시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전원성전에서 12차 모임을 갖고 심신을 단련하며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했다.

모임에 앞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직전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식사기도로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오찬 후 드린 예배는 회장 홍현철 목사의 사회로 임영광 목사의 기도,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믿음과 행함'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본질과,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바르게 전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최남성 목사의 헌금기도 후 이어 제목기도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황용연 목사가,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손세웅 목사가, '국내 및 세계선교를 위해' 백영자 목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김명자 목사가, '종교다원주의 및 동성애반대를 위해' 최형택 목사가, '총회와 정책위

원회를 위해'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가 마무리 기도와 함께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으며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행사로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뒷산을 산책하며 친교를 나누었으며 회원들은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한편 이번 모임에는 베드민턴선교회(회장 임영광 목사) 회원들도 함께 했다.



걷기동우회장
홍현철 목사



베드민턴교회 회장
임영광 목사



화제의
신간

신·구약 총망라! 통일 관련 내용 및 난제 집중 조명

이 책은 기존의 학설이나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유전적인 학설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성경말씀으로만 풀어 해석해 난해한 부분까지 알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정리하였다.

국제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한 'NIV'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는 때를 The day와 The hour로 번역하고 있지만(마24:36, 25:13),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때를 1260일 즉, The year로 설명해주고 있다(단7:25, 12:11, 계11:2-3, 12:14).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의 날과 시간은 하나님 외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지만(마25:13), 인류의 마지막 환난의 때(연도)는 지구촌의 대홍수를 노아가 1백 여년 전에 알았던 것처럼 종말의 때가 가까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창6:3, 살전5:4).

이 책이 발간되면 이단 논란은 물론 많은 박해가 따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수꾼의 사명을 저버릴 수는 없기에 모든 것을 각오하고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성경의 일부 해석을 바로잡고 인류 종말의 시간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완전성과 그 숨겨진 뜻을 밝히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디지털시대와 밀레니엄 시대를 분주히 살아가면서 인류의 미래사와 인생의 진정한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 그 답을 찾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저자 : 박 정 옥 강도사
010-2373-6150

“...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
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이다”(요엘1:1-1:2)

2025년경 한반도는 북한의 도발로 전쟁에 의해 북진통일되어 세계의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다.



- * 단11:32, 욥2:20, 스6장에 예언한 한반도 통일전쟁(61-74)
- *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짐승(계13), 미운물건은 무엇인가(75)
- * 중국의 지원으로 확대되는 제3차 세계대전의 전개과정(82)
- * 중동지역(유브라테강)에서 2억 명의 군인이 집결해 제3차 세계 대전이 전개되는데, 이 때 변개 같은 무기인(원자핵 융합) 수소폭탄을 사용됨으로써 한 시간 이내에 세계 인구 1/3이 멸망하게 된다(겔 21:10, 계9:14-16).
- * 용을 국가의 상징물로 하면서 방패(국기)와 옷(군복)이 붉은 색을 사용하는 공산주의 나라인 중국이(나2:3), 세계를 제패한 후에(계13:3-10, 나2:3-4) 인조인간을 만들어(계13:15) 종교단체와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참배하게 하는 때가 오게 된다(계13:16-17).
- * 북한이 서기 2025년 전후로 남침을 감행하나 미국의 적극개입으로 한반도는 순간 북진통일 되고(욥 2:20, 스6:6-8, 계12:16)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이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계7:2-3).
- * 변개와 수소폭탄은 원자핵의 충돌 또는 융합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에서 같은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변개 같은 무기는 핵무기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다(겔21:10, 나2:3-4).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넷서점

문의 : 파랑새미디어 02-333-8311

교회(종교)개혁 500주년과 WCC 반대 4주년 집회 기자회견

■ 반대집회

- 일시 / 2017년 10월 14일(토) 오후 1시
- 장소 / 청계천 한빛광장

- 일시 / 2017년 9월 25일(월) 오후 1시
- 장소 / 송파 모처
- 주최 / WCC반대운동연대

■ 기자회견문

한국교회 대부분은 교회(종교)개혁 500주년을 즈음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거행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교회는 교회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며 분체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WCC반대운동연대는 이번에는 『슬프도다 개종된 한국교회여』라는 소책자를 발행하고,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10월 14일(토) 오후 1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며 송파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그 내용을 들어보았다.

- 『슬프도다 개종된 한국교회여』라는 소책자를 발행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다. WCC정체성을 알고 계셨던 몇몇 분들은 WCC 제10차 총회가 2013년도에 한국교회 안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한국교회 안으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으로 예견했었다. 이를 심히 우려하면서 WCC반대와 더불어 WCC총회가 한국교회 내에서 개최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 WCC총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개최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개최 된지 4년이 지난 지금의 상태는 예견한 대로 WCC 물결에 한국교회 대부분이 휩쓸려 초토화 되고 말았다. 이러한 실상을 한기시커 한국교회 남은 부분만이라도 있다면 지키고자 소책자를 발행하게 되었다.

- WCC총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개최된 것으로 한국교회가 초토화가 되었다는 설명을 들어도 느낌과 닿지 않는다. 2013년도에 WCC 총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개최된 그때나 4년이 지난 지금이나 한국교회는 변함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WCC 쓰나미에 휩쓸려 초토화 되었다고 하는가? 이해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2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쓰나미가 어느 한 마을에 밀려들게 되면 그 마을 전체는 쓰나미 물결에 다 젖게 되고 마을 전체는 쓸대밭이 되고 같이 한국교회 안에서 WCC총회가 개최 된지 4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교회 상태는 WCC 사상의 물결에 젖을 대로 젖어 온통 WCC기독교로 변해 버린 상태이다.

비극의 상태를 다른 예로 설명하자면 북한의 공산주의 김정은이가 세계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공산주의 전당대회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것과 같은 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WCC 세계 총회가 개최된 것이다. 북한의 공산주의 김정은이가 세계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공산주의 전당대회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였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곧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고 대한민국이 점령당한 것이고 공산주의가 되어 버린 상태가 아니겠는가? 2013년도 WCC총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개최된 것은 이와 같다. 한국교회는 WCC로 인하여 완전 무너져 버렸고 WCC에 완전 점령당한 상태이고 한국교회는 WCC로



변종이 되었고 WCC 기독교로 개종 되고난 상태이고 WCC에 의하여 완전 초토화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영적상태이다.

- WCC에 의하여 한국교회가 초토화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말해 달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경우를 두고 보자. 한기총의 정체성은 보수주의였다. 보수주의였기에 당연히 WCC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교회를 WCC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WCC 세계 총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개최 된지 4년이 지난 지금을 보라.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지 않았었는가? 이영훈 목사가 누군가? WCC 총회를 유지하고 개최한 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WCC 제10차 총회를 진두지휘한 김삼환 목사, 박종화 목사와 함께 3인방 중에 한 사람으로서 WCC 10차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장인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등극한 이 같은 사실이 보수주의 기독교회가 정복당하고 몰락한 증거다. 한국교회는 WCC와 같은 비 복음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진 종교다원주의는 발을 붙일수 있는 모양이 절대 아니다. 보수주의와 개혁주의가 한국교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수주의와 개혁주의는 공히 WCC와 같은 잘못된 노선으로부터 기독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수주의가 2013년 WCC 총회가 개최된 전후로 무너져 버렸고 개혁주의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말았다. 대표적인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다. 합동교단의 정체성은 장로회로서 칼빈의 개혁주의이며, WCC를 반대하는 것을 생명으로 하여 태어난 합동교단이다. 그러므로 합동교단은 어느 누구 보다도 WCC정체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WCC의 실체를 담은 책을 발행하였고 WCC반대대책위원회위원

장 서기행 목사를 조직하였던 것이고, WCC를 반대하는 38개 보수교단을 모아 『한국교회 WCC반대 보수교단 연합』을 조직하고서 WCC반대한다고 호렷에서 커피 마시며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 WCC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돌아서 버린 합동교단이었다. 이로써 WCC를 반대하는 38개 보수교단들로 조직된 『한국교회 WCC반대 보수교단 연합』은 일순간 무너져 버린 것이었다. (인명환 목사가 총회장이 되어서 겨우 격려사 순서 하나 맡아서 WCC 반대 부산집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합동교단의 WCC 반대대책위원장 서기행 목사의 이 같은 행동은 한국교회를 지켜야 할 보수주의와 개혁주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포기해 버린 행위로서 북한의 공산주의 김정은이가 세계 공산주의 전당대회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려고 휴전을 넘어 오는 것을 막지 않고 허락해 버린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다. 합동교단이 이러하였으니 한국교회가 어떻게 온전하겠으며 WCC 물결로부터 건널 수 있었겠는가? WCC에 점령당하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WCC와 뒤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합동교단이 기독교회를 지키는 보수주의, 개혁주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한국교회 안에서 WCC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나서야 했었다. 그러나 합동교단은 그와는 반대로 WCC 총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개최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돌아서 버린 것이다.

선 자는 이진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있다. 개혁주의 합동교단이 바로 이와 같이 되고 말았다. 2013년도 WCC 총회가 개최되고 바로 다음해인 2014년도에 합동교단은 통합교단의 손에 이끌려서 전직 총회장 모두가 통합교단 전직 총회장 모두와 함께 연합을 위한 기도회를 합동교단 소속 사령의 교회에서 개최하였다. 손을 잡고 연합을 도모한 통합교단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 종교다원주의 WCC회원이며 WCC 세계 총회를 유지하고 개최한 핵심교단이며 2009년도에 로마제국의 우상 종교 가톨릭과 이미 일치 해버린 교단이며, 일치한 것에 따라 2014년도에는 가톨릭과 가까이 사귀기 함께 기도하기 함께 공부하기 함께 행동하기로 조약을 맺고 서명하여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를 일치하기로 구구를 창립한 상태이다.

통합교단은 이 뿐만 아니라 NCC(교회원로서 1987년부터 가톨릭과 하나의 일치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연중행사로 기도회를 개최해온 정체성을 가졌다. 기독교회를 가톨릭에 일치해 버리면 그 동안 역사를 이어온 기독교회는 종말이 고해지고 만다. 이러한 통합교단의 정체는 반 기독교적인 역적 행위이며, 반개혁주의이며 배교행위이다. 합동교단은 이러한 무서운 정체성을 가진 통합교단과 연합을 버리는 기도회를 개최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한기총에 이단성을 가진 교단이 있다 하여 탈퇴하더니만 최근 들어서는 그 한기총을 비롯하여 동성애를 옹호 지지하는 NCC(교회원 교단들과 함께 『한국교회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회』를 창립하기 까지 했다.

이 같은 합동교단의 행위는 개혁주의도 아니고 보수주의도 아니고 정 반대의 정체성, WCC가 추구하는 포용주의이며 혼합주의가 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연합단체를 창립하고서 한국교회 95%가 가입하였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WCC 제10차 총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개최하고서 한국교회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교회는 WCC기독교가 되어 버린 사실을 증명한다.

- WCC 총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개최된 이후 한국교회가 WCC화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WCC총회를 한국교회 안으로 유지하고 개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을 비롯한 NCC(교회원) 책임이 있다. 그 보다 더 큰 문제의 원인은 한기총과 합동교단이 보수주의와 개혁주의로서 한국교회를 지켜야 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유야 어쨌든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이며 한국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의 이기에 WCC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 그러한 한기총이 자신들이 유지한 WEA 총회 개최를 위하여 2013년 1월 13일날 선언문 발표로서 WCC 총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개최되는 것을 이해한다며 용인했다. 이는 어떤 이유를 앞세워도 책임을 면할 길 없는 행위이다. 한기총이 유지한 WEA 총회를 위하여 WCC 총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개최되는 것을 허락해 버린 이 같은 한기총의 행위는 한국교회 안으로 WCC 사상의 물결이 온통 밀려들 수 있도록 독을 더운 행위이다.

합동교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WCC 정체성을 누구 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한국교회 WCC반대 보수교단 연합』을 조직하고서 다음과 같이 WCC를 성토했다.

“WCC 제10차 총회가 2013년 10월 30일부터 부산에서 모이는 것은 한국교회의 재앙이요, 한국교회 신자들의 불행”이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장, 기감, 통합, 성공회 4개 교단이 WCC 제10차 총회를 한국 부산으로 유지한 것은 신신학자들과 지주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어 기독교의 탈을 쓴 종교연합주의자들의 발상”이라고 밝혔고 당시 합동교단 정준모 총회장 역시 설교에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 진리에 오염되지 않도록 삼자가의 영성으로 대처하자”며, “예국된 성경론과 종교간 대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퇴색시키는 WCC 세력에 대해 순교적 각오로 임하자”고 말했다.

이러하였던 합동교단이 얼마까지 않아서 WCC 반대대책위원장 서기행 목사가 나서서 WCC제10차 부산총회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돌아서 버린 것이다. WCC의 실체를 알고 있었던 합동교단이 어떻게 그럴수 있단 말인가? 총회 회관을 팔아서라도 한국에 있는 모든 보수주의와 개혁주의를 다 불러 놓고 앉아서서 WCC총회를 유지하고 개최하려는 통합교단과 NCC(교회)에 대항하여 싸워야 했었다. 그렇게 해야 할 합동교단이 개혁주의로서 그 사명과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도리어 용인한 처사는 WCC 총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합동교단이 스스로 문을 열어준 행위이다. 이 같이 합동교단과 한기총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다 하지 못한 연고로 한국교회는 WCC 물결에 초토화가 되고만 것이다.

합동교단 WCC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이 WCC 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한기총이 WCC 총회가 한국교회 안에 개최되는 것을 이해하며 용인한 것은 휴전선을 지키지 않고 북한의 공산주의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내어준 꼴이다. 이러하니 한국교회의 지금의 상태가 어땠겠는가? 한국교회에서 장지교단이라는 칼빈의 개혁주의 정체성을 가진 합동교단이 통합교단을 비롯하여 NCC(교회원)들과 연합단체를 창립한 이유로서 앞세운 “한국교회 연합을 통한 대정

부, 대사회, 통일문제 등에 대한 교회적 대처”를 하기 위함은 인본주의 사상이고 이것으로 합동교단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팔아서 얹어 버린 것이다. 이로써 한국교회 대부분은 WCC물결에 젖어버리고 만상 태이다.

- 금년에 발행한 책의 제목을 보면 한국교회가 개종되었다고 했다. 어떻게 개종되었다는 말인가?

기독교회는 본래 개혁주의 정체성을 가졌다. 비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이며 이교도 적인 로마 제국의 종교 가톨릭이 기독교회 모양새를 하고 기독교회 자리에서 기독교회로 행동함에 루터와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들고 일어나서 저항을 하고 성경적으로 개혁을 하고 본래의 기독교회로 회복하여 역사를 이어온 정체성에서 보듯이 기독교회 그 자체가 개혁주의이다. 이러한 개혁주의 반대의 정체성, 곧 포용주의와 혼합주의로 개종이 되고 만 것이다. 그 증거로서 한기총과 합동교단, 백석교단이 WCC 총회를 개최하고 자신들을 가톨릭에 일치 시켜 버린 통합교단과 NCC(교회)원교단과 함께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과 전통을 그대로 존중』 하고서 『한국교회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회』를 창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개종되어 버린 증거이다.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과 전통을 그대로 존중』 한다는 것은 WCC가 로마 가톨릭과 일치하기 위하여 로마 가톨릭의 비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이고 이교도 적인 교리와 제도와 전통을 몰지조 따지지도 않고 일치하기 위해 앞세운 조건이다. 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서 통합교단과 NCC(교회)의 역적 행위와 반역 행위와 배교 행위를 배격하거나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연합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목사의 새끼를 쫓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

- 교회(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교회(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할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 연합을 통한 대정부, 대사회, 통일문제 등에 대한 교회적 대처” 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WCC의 인본주의 정신에서 비롯된 포용주의, 혼합주의를 몰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WCC 회원에서 탈퇴해야 한다.

2) 통합교단이 2009년도에 가톨릭과 일치한 사실에 대하여 회개시키고 공개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통합교단이 2009년도에 가톨릭과 일치한 사실에 대하여 회개시키고 공개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

4) 통합교단이 가톨릭과 일치한 것에 따른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키기 위해 창립한 협의회에서 탈퇴시켜야 한다.

5) 통합교단은 NCC(교회)와 결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권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통합교단을 한국교회에서 탈퇴시켜야 한다.

NCC(교회)에 해당하는 되지않아 특히 통합교단의 경우는 한국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합동교단이 도리어 앉아서서 정 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으니 무슨 말을 더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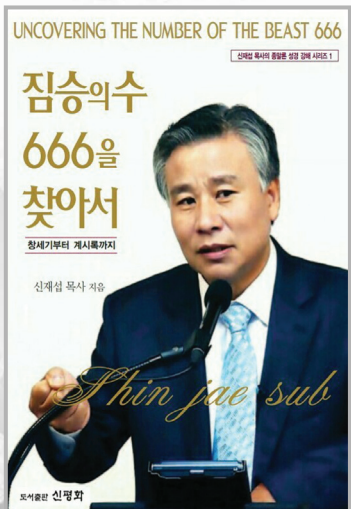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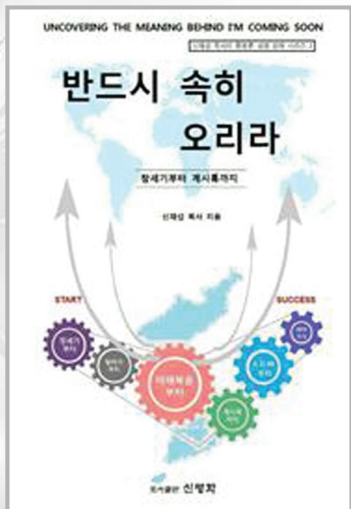
책 주문/ 무료(비매출, 택배비착불)
010-6642-4131

신재섭 목사의 종말론 성경 강해 시리즈 2권

교재의 특징

1.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속히 오는 종말론을 연구하므로 성경해석학이 분명해진다.
2.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한 권의 책으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종말론이 다 밝혀진다.
3. ‘반드시 속히 오리라’ 2권의 책은 가상, 예측 미래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상이다
4. 성경의 하이라이트인 종말론이 열어지면 창세기 - 계시록까지 한 줄기로 열려진다.
5. 오늘날 종말론 때문에 전 세계에 거짓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 일 시 : 2017년 9월 11일(월) - 12월 11일까지
강의시간(오전 11시 - 오후 2시)
- 동영상 : 검색 신재섭 목사
- 참가비 : 3개월 700,000원 (교재 포함)
- 문 의 : 010-4380-8751 (순복음약속교회)
- 주 소 :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86-11



장기부전환자 위해 5천만 원 후원금 전달

사랑의본부 회원, 2013년부터 총 8천여 명 장기기증 서약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9월 16일(토) 가평에서 열린 '2018 엑스포 for 컴패션'을 통해 특별한 전달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암웨이대표이사 김정환) 사업자의 비영리 공익재단인 '사(사)사랑의본부' (본부장 김일두는 20,000여 명의 후원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랑의본부는 '2018 엑스포 for 컴패션' 행사를 진행하며 본부를 초청해 장기기증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과 함께 등록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 엑스포 for 컴패션'은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한국 컴패션, 대한적십자사 등 사회공헌을 위한 협약을 맺은 5개 단체와 국내 3개 보육원, 네발 한술 학교 등에 그동안 나눔활동을 한 내용을 후원자들에게 보여주는 자리이다. 이번 '2018 엑스포 for 컴패션' 장기기증 희망등록캠페인을 통해 1,137명의 사랑의본부 회원들이 장기기증 등록에 동참해 2010년부터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사랑의본부 회원은 8,000여 명이다. 또한, 장기부전환자를 위한 후원금 5,000만 원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일두 본부장이 참석해 "많은 장기부전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주고,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회원 만 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본부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2010년부터 후원한 총금액은 2억1천9백4십5천9백2십 원이다.

사랑의본부는 7년 전부터 회원 8,000여 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는 등 장기기증운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참여해온 단체이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회원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해 홍보하고 등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만성신부전 환우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팀 363-2114(내선5번)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2년 전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부흥시켜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어느 목사님을 통해 가족세트전도법을 소개받고 인터넷에 검색하여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목사님을 찾았다. 교회개척 이후 인터넷검색을 통해 여러 가지 전도법을 접했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전도법은 접근이 현실적이지 못해 포기했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능력교회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지만 2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다. 실망과 낙심이 찾아올 무렵 알게 된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는 참으로 획기적이었다.

처음 교육을 이수하고 전도현장에 나갔다. 사람이 많지도 않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고 있어서 불신자들에게는 1분 영접기도와 함께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시간 정도 걸어가며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영접기도 시키며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돌아오며 '교회에 돌아오게 하려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전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큰 도전을 받았다.

교회에 돌아와 어린 학생들과 어른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1분 영접기도를 했다. 10명 만 나면 2명 정도 가능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름을 적는 전도대상자가 대략 30명이 넘는다. 이전에 교육부서를 사역하면서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할 때 학생들에게 선물 을 나누어 주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 적이 있다. 그때는 10명 중 8명이 잘못된 전화번호를 말해주었다. 대부분 어른들도 전도하며 연락처를 받기는 했었다.

그런데 어른들도 10명 중 7-8명은 잘못된 전화번호였다. '세상이 이렇게 거짓으로 변해가는구나'라고 낙심했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박영수 목사님을 통해 가족세트 전도법을 만나고 거리로 나가서 전화번호를 적었다.

물론 10명 중 2-3명은 축복기도도 하고 영접기도도 하고 연락처를 기록했다. 교회로 돌아와서 인부분자를 보내면 모두가 고맙다고 인사문자를 보내주었다.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는가 예전에는 거짓된 전회번호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정확한 전회번호를 알려주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재택기도시간에 조용히 돌아보았다. 가족세트 전도법은 스가과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도 기뻐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했다. 두 달 동안 10여 명이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어서 너무 없으며 다시는 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잘 나올 것 같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없이 시작한 개척교회이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연단이었구나'하며 전도했지만 차츰 낙심이 되었다. 전도대원도 없이 혼자 나가려니 점점 더 낙심이 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되신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세우기를 멈추지 않으셨다. 다시 평내순복음교회를 찾아가 가족세트 전도훈련을 받게 하셨다. 지난주에도 전회보다 귀한 한 생명이 예배에 동참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종에게 새로운 전도의 비전을 보여 주셨다. 이를 계기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비록 혼자 나가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는 혼자 가 아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 앞에 그들은 진실을 말하게 되었다. 올바른 집주수와 올바른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지금 당장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들은 우리 능력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예비자가 될 것을 확신한다.

- 능력교회 이용자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

심층적인 성경의 연구와 기도를 통해 말씀 깨닫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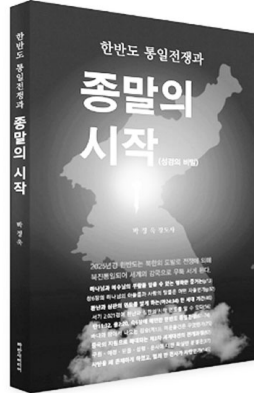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박정욱 명예회장 (예정활동 강도사)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박정욱 명예회장이 기업인으로는 드물게 '한반도 통일전쟁과 종말의 시작' (부제: 성경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박 회장은 1965년생으로 속리산 끝자락의 산골 마을에서 장애를 지닌 몸으로 태어났다. 그는 불편한 다리를 부여

잡고 4km 거리의 초등학교를 걸어서 다녔고 중·고등학교도 자택에서 약 50km 떨어진 경북 김천에서 지취를 하면서 수학했다. 영하10도 이하의 기온이 겨우내 유지되던 고산지대에서 장애를 지닌 몸으로 태어나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는 사춘기 때부터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나의 힘든 삶을 꼭 살아야만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서한때는 수도자의 길을 추구하기도 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어려운 환경과 장애로 인한 고난의 삶을 극복하고 미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무작정 집을 떠나서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덕유산 정상을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기어가다 쓰러져서 올라갔다.

그리고 한바위에 앉아서 다음날 새벽까지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전력을 다해 기도를 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자 새벽녘에 가서야 마음 속으로 부



▲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의 창립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박정욱 회장

요한계시록 강해

신재섭 목사 // 예하성 서울남서지방회 중경회장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은 누구에게 전달된 것인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1.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을 전달한 순서

1) 예수님 - 2) 천사 - 3) 사도요한 - 4) 일곱교회 - 5) 종들과 성도 - 6) 일곱교회와 미래의 성도

2.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은 누구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가?

계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 1권 짐승의 수 666을 찾아서(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에서 결론부터 말을 했다. 창세 이후로 모든 짐승(여섯선지자: 우상숭배에게 경배하면 경배 받는 자로부터 인과 표를 받는 것이다. '속히 오리라' 단어도 결론부터 말을 하면 사도요한이 당시 일곱교회 사자와 성도들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속히' 될 일들을 일곱교회에 써서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속히' 될 일들은 일곱교회에서 속히 될 일들이다. 계 1:1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서 "그 종들은 누구인가?" 일곱교회의 사자들과 성도들이다. 계 1:1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무엇을 지시했는가?" 일곱교회들의 상황들을 책을 써서 무엇을 회개하고 고쳐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것이다.

계 1: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 1: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계 1:10에 주의 날이란? 사도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계 1:11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일곱교회에 보내라는 것이다. 무엇을 보았는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곱교회를 불꽃같은 눈을 보고 있었다. 일곱교회 상태를 파악하니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여 사단의 발이 되어 진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띄운 것이다. 일곱교회에서 진 자와 이긴 자들의 삶을 예기사로 뽑아내 보면 다음과 같다.

계 1: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계 1: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누가 보았고 누가 책을 썼는가? 사도요한이다. 예수님이 일곱교회 내부의 상황들을 알기에 간박하게 사도요한

에게 책을 써서 보낸 것이다. 왜 보내야만 했는가? 바로 일곱교회 내부에 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의 도표와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사도요한이 AD 96년에 보냈다. 왜 보냈는가? 일곱교회 사자와 성도들이 실존으로 생존해 있기 때문이다.

2. 일곱교회에 편지를 띄운 발신자는 사도요한이요 수신자는 일곱교회다

1) 계 2:1 에베소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일곱교회를 불잡고 일곱축대사이를 다신 이가

2) 계 2:8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3) 계 2:12 버가모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린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4) 계 2:18 두아디라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노이 불꽃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5) 계 3:1 사데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일곱영과 일곱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6) 계 3:7 빌라델비아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7) 계 3:14 라오디게아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된 이가 가라사대

1) 에베소교회 2) 서머나교회 3) 버가모교회 4) 두아디라교회 5) 사데교회 6) 빌라델비아교회 7) 라오디게아교회 일곱교회에 사도요한이 편지 서두에서 밝힌 것 같이 분명히 AD 96년 시대이다. 편지하는 교회들의 이름들이 기록 되어 있다. 일부 학자들은 1) 에베소 교회를 초대교회 시대로(AD34-100) 2) 서머나 교회를 필박과 순교의 시대로 (AD100-313) 3) 버가모 교회를 타협의 시대로 (AD313-538) 4) 두아디라 교회를 로마교회 종교개혁시대로 (AD538-16C 말) 5) 사데 교회를 종교개혁시대로 (16C 말-18C 중) 6) 빌라델비아 교회를 개신교회의 세계선교 시대로 (18C 중-19C 말) 7) 라오디게아 교회를 21세기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착각이다. 성경해석학을 성경에 입각해서 해석해야지 예측, 학설, 영화 같은 가상적 시나리오로 하면 안 된다.

계시록 일곱교회 발신자는 사도요한이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육하원칙을 사용하겠다. 육하원칙을 쓰는 이유는 신천지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신천지로 빠져 나간 성도들이 자신이 섬기던 목사님에게 계시록 말씀과 함께 육하원칙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청서를 조직적으로 보내 지능적으로 태러를 가했기 때문에 사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요한 부분을 육하원칙으로 다루

터 세밀한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가시니 계속해서 기도하며 탐구해보아라" 다음날 덕유산 산을 하산해 고향 마을로 돌아온 그는 이러한 응답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를 드리는 생활에 접어들었다.

그는 청년 시절인 1976년경부터 꿈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들(818 도끼 만행·박정희 대통령 서거)을 보았고 그 후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체험했다고 한다.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도 장애인으로 취급이 되지 않자 엑세서리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업이 순탄해지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서 세상과 더불어 많은 죄를 짓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사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많은 빚을 지고 도망을 다니면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 그러던 중 그는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드렸다. 인생의 근본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그는 심층적인 성경의 연구와 기도를 통해 세상 종말에 있을 성경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박 회장은 최근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저술해 책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기존의 학설이나 지금까지 전해져오고 있는 학설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성경말씀으로만 풀어 심도 있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증거를 성경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과학적, 지질학적으로 밝혀주고 있으며, 사탄론에 대해서도 성경에 입각해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출간한 '한반도 통일전쟁과 종말의 시작'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박 회장은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만 외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출연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삼전 5:3)면서 디지털시대와 밀레니엄시대를 분주히 살아가면서 인류의 미래사와 인생의 진정한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 그 답을 찾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010-2373-6150

려고 한다. 일곱교회 서두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분명하게 밝혔듯이 일곱교회에 편지를 띄울 때에는 AD 96년이다. AD 96년도에 편지를 띄운 지역은 일곱교회에 생존해 있을 당시에 일곱교회의 사자와 성도들이다.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자들과 성도들에게 편지 내용을 가르쳐서 잘못된 삶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곱교회에서 편지를 띄운 내용들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1) 에베소교회의 편지는 에베소교회에 맞는 편지를 썼기 때문에 에베소교회에 적용이 된다. 2) 서머나교회의 편지는 서머나교회에 맞는 편지를 띄웠기 때문에 서머나교회에 적용이 된다. 3) 버가모교회 4) 두아디라교회 5) 사데교회 6) 빌라델비아교회 7) 라오디게아교회의 편지도 마찬가지다. 이런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가상적 시나리오로 왜곡하여 1) 에베소교회를 초대교회 시대로(AD34-100) 2) 서머나교회를 필박과 순교의 시대로 (AD100-313) 3) 버가모교회를 타협의 시대로 (AD313-538) 4) 두아디라교회를 로마교회 종교개혁시대로 (AD538-16C 말) 5) 사데교회를 종교개혁시대로 (16C 말-18C 중) 6) 빌라델비아교회를 개신교회의 세계선교 시대로 (18C 중-19C 말) 7) 라오디게아교회를 21세기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 계시록 일곱교회를 AD 96년부터 오늘날까지 성경해석을 한다고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나누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곱교회를 시대마다 흐트러 놓으면 "반드시 속히 오는 사건과 때가 가깝다는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계 1-3장 성경해석

1) 언제 : AD 96년도

2) 누가: 예수님이 사도요한에게

3) 어디서 : 유배된 밋모섬

4) 무엇을 : 일곱교회 성격에 맞는 편지의 내용들

5) 어떻게 : 종들로 통하여 일곱교회에 보내졌다.

6) 왜 : 일곱교회가 진자의 삶을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면 영생을 놓치기 때문이다.

1) 에베소교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이다. 2) 서머나교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이다. 3) 버가모교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이다. 4) 두아디라교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이다. 5) 사데교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이다. 6) 빌라델비아교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이다. 7) 라오디게아교회의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이다.

반드시 속히 오리라 본문의 책 1-3P 중에서...

전국여교역자국 2017추계 성령충만수련회

‘주여! 성령의 불을 주소서!’ (눅 12:49-50)
성경대로의 바른 복음전파 위해 헌신 다짐



한순남 목사
전국여교역자국장

전국여교역자국(국장 한순남 목사) 2017성령충만추계수련회가 지난 9월 18일(월)~20일(수) 2박 3일간 은혜와진리수양관에서 열려 이단 사이비가 난무하고 다원주의와 동성애가 기존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온 이때 바른 복음전파를 위한 사명을 확인하고 사랑과 인내, 열정과 희생으로 땅끝까지 성경대로의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주여! 성령의 불을 주소서!’ (눅 12:49-50)라는 주제 아래 부르시옵소서 소명을 따라 성령충만을 받기 위해 전국에서 한자리에 모인 여교역자들은 교단과 교회 여교역자국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헌신함으로 기도했다. 18일(월) 오후 2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성령충만수련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예배는 교단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의 사회로 시작, 직전 여교역자국장 탁정신 목사의 대표기도, 순복음방송교회 이택규 전도사와 정성길 사모의 특별연주,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약 2:14-26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과 행함’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본질과,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 고백하게 전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교단 총회장 김양인 목사를 비롯해 강사진의 특강1, 특강2, 특강3 등의 시간과 매일 저녁 신동숙 목사, 한순남 목사, 김바울 목사를 강사로 부흥회 시간이 있었으며 회원들은 여교역자로서 목회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역의 모습들을 간증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었다.

이번 수련회는 셋째 날 폐회예배에서 전직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대림벤야민교회)를 강사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느라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교역자국 회원들은 시간마다 설교와 특강을 통해 사명을 일깨웠으며 성령의 역사로 큰 은혜를 받아 목양지에서도 더욱 힘을 얻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설교
교단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특강
교단 총회장
김양인 목사



고문
교단 전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표기도
직전 국장
탁정신 목사



특별기도1
자문
신동숙 목사



헌금기도
차장
김바울 목사



특별기도2
홍보부장
김순자 목사



이택규 전도사의 특별연주



셋째 날 광명동굴 탐방



정권의 방송장악 모의 중단해야 한다

100여 개 시민단체, “민주당·청와대 공영방송 장악” 규탄 집회

한 언론이 지난 8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나라지킴이교연합, 전국국동지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등 10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9월 12일(화) 오후 2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민주당·청와대 방송장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민주당이 앞 거리를 가득 메운채 “민주당이 공영방송인 KBS와 MBC를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확정할 것은 명백한 방송장악

음모”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운한국을위한 국민운동 서경석 목사는 “이번에 드러난 문건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권여당의 한벌과 법률 위반 증거”라며 “정치권은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주옥순 엄마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분명히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시키고 남았을 것”이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조연환 올인코리아 대표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조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의 편을 갈라 정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시대적 술

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이희범 사무총장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MBC·KBS 파업, 유선선 방문진이사 사퇴,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 등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기획된 일련의 사건”이라며 “그 목적이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사실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정치권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인근 KBS 본관까지 행진을 한 후 KBS 노조 성도 및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집회를 마치고 매주 화요일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국창조과학회 기자회견 열어 ‘오해와 진실’ 입장 표명

“증명된 사실은 부정 안해, 오류 투성이 진화론 부정할 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진 후보의 인사 청문회를 계기로 세간에 오르내렸던 한국창조과학회(회장 한윤봉 교수)가 9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해와 진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과학자들은 사이비 과학자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화론이 우주와 생명체의 우연적인 자연발생을 전제로 과학적으로 맞다고 주장하듯이, 창조과학은 창조를 전제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지질학, 의학, 생명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 원자력공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적설계에 의한 창조가 과학적으로 사실임을 검증하는 과학적인 연구와 학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본 학회 회원들은 과학과 공학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 성과들을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창조과학회는 증명된 과학법칙과 과학적 사실들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된 오류가 많은 이론인 진화론과 타협이론들을 부정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창조과학회는 근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지구 나이 6000년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영남대 물리학과 권진혁 교수는 “일반적으로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창조과학회는 우주와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주장하는 사이비 과학단체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다”면서 “시간의 문제는 물리학에 있어 가장 심오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우주

와 지구의 나이와 같이 기원의 시간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고려해야 할 점들을 설명했다.

창조과학회는 진화론과 창조론 모두 입증되지 않은 동일한 ‘논(論)’이라면 어느 하나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놓고 치열하게 변증을 통해 과학적 사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교과서에는 진화론만 소개되어 있을 뿐 창조론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설

종교개혁 5백주년의 소박한 소망

10월은 종교개혁 5백주년을 맞이하는 달이다. 1517년 10월 31일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지하에 있던 독일의 도시 비텐베르크 성 부속교회 정문에 달린 루터는 “면죄부에 관한 95개 논제”(Disputation)를 붙였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그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 받고 있다.

우리는 이때를 맞아 거창한 구호보다 매우 소박한 소망을 갖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서 이탈한 강단을 개혁하는 일을 강력히 전개하자는 소망이다.

종교개혁은 거짓된 교회 강단 메시지의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말틴 루터는 ‘화체설’에 의거한 로마 천주교 미사를 “무당의 곳”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 강단에서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복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릇된 성만찬 교리에 의한 예배 의식이 중심이 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것을 성경 말씀 대로 구원의 복음 중심으로 바로 세우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사건의 하나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의 사역이나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 예배 설교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월평균 30%의 사역을 설교사역에 투입하고, 월 평균 7회의 설교를 하고 있다(2014. 교회경신협의회).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설교가 좋아서”라는 대답이 28%로 조사되었다. 다른 조사에서는 예배가 은혜로운 이유는 “설교가 좋아서”라는 대답이 62.1%였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못하는 이유로 “설교가 길어서”라

는 대답이 24.9%로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 날 우리 한국교회 강단의 말씀 선포는 설교의 정도를 벗어나 잡담으로 넘치는 경우가 너무 많음을 본다. 설교 말씀의 성경 본문은 간 곳 없고 복음이 없는 공허한 사사로운 말의 잔치, 지나친 유머의 등장, 세상 이야기, 본문주제를 한 참 떠난 예화의 건강부회 등 교인들의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설교가 너무나 범람하고 있음을 본다.

말틴 루터는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했다. 종교개혁자들은 참다운 개신교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올바른 말씀 선포와 올바른 성례전의 집행”이라고 하였다. 복음의 선포가 확고히 서 있는 올바른 하나님 말씀 선포가 아닌 설교는 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 말씀이다.

루터 칼뱅 쾰링글리 등 종교개혁자들은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주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이다. 한국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천주교와 불교 다음으로 낮다는 것은 교회 속에 넘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등이 주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세속적인 설교로 인해 영혼이 상쳐 받고 있음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종교개혁 5백주년, 거창한 개혁 구호보다 목회자들이 성경말씀과 복음 중심의 선포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이 매우 소망스럽다고 생각되는 이유이다.

대법원장은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 밝혀야

새 대법원장은 임기 중 12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 한재판관관 9인의 지명권, 3000명이 넘는 법원에 대한 인사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사상 이념적 좌편향성은 물론 동성애 동성혼 찬성 여부에 대한 중립적 태도 견지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해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법정신에 의하여 사실적 이념적 편향 없이 양심과 법률에 의해 판결해야 하는 재판에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리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3권의 분립과 상호 견제를 지키는 중대한 지위이다. 그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

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거나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특별한 공부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법원 내 좌파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으로 재직할 때 가진 2차례의 학술회의와 연구회 발간물 등에 따르면 인권보호를 내세워 극단적인 동성애·동성혼지지 성향을 드러냈다고 동반연(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102개 단체인 공동대표)이 지적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국민 앞에 표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한교연-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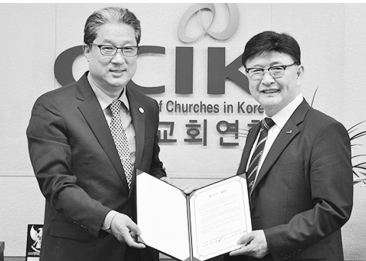
평창동계올림픽 선교지원과 협력 위해 체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서석근 목사)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교 지원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9월 11일(월) 오전 11시 한교연 대표회장실에서 가진 선교협약식에서 한교연과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에 참여하는 선수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도와 봉사하는 일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 속에 한국교회를 알리고 올림픽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에 하나 됨을 보여주기 위해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교연에서는 사무총장(대행) 최귀수 목사와 기획홍보실장 김훈 정로가,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본부장 김서영 목사, 부분부장 김용철 목사, 기획국장 배배희 목사 사무국장 심성근 목사가 참석했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오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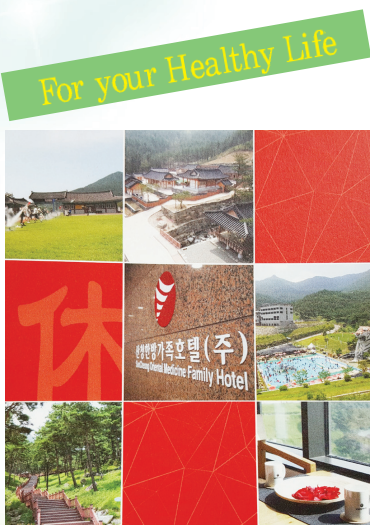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 전국사모단합대회

주제 : '주안에서 하나되자' (시 133:1)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7년 전국사모단합대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제7차 전국 사모단합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좋은 교단 좋은 사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사



총회장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부총회장 임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 일 시 | 2017년 10월 16일(월) ~ 18일(수) 2박 3일

| 장 소 | 제주도,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견수 목사)

| 대 상 | 교단 산하 각 교회 사모

| 문 의 | 총무 김귀순 사모(010-8973-4250)

재무 김숙향 사모(010-8372-0091)

| 후원계좌 | 농협 352-1317-6813-13 김숙향

일 정 표

10월 16일(월)

- 13:30~14:30 개회예배
(설교 총회장 김양인 목사)
- 14:30~18:00 제주지역 관광

10월 17일(화)

- 09:00~18:00 제주지역 관광

10월 18일(수)

- 09:00~10:30 팀웍
(단합의 시간)
- 10:30~11:30 폐회예배
(설교 부총회장 임웅재 목사)

2017 전국사모회 증경회장단

고문



최혜선 사모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한정은 사모
(가평순복음교회)

증경회장



김양란 사모
(모항안디옥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증경회장



김영숙 사모
(순복음아름다운교회)

증경회장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직전회장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2017 전국사모회 임원진

수석부회장



윤금자 사모
(목양제일교회)

1부회장



한옥현 사모
(광양은혜와진리교회)

2부회장



박경미 사모
(순복음승리교회)

총무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부총무



신순철 사모
(순복음제일교회)

서기



배은록 사모
(순복음소망교회)

부서기



김세희 사모
(괴산순복음교회)

회계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부회계



김병희 사모
(은혜와승리교회)

재무



김숙향 사모
(안성평강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